

대환난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2)

- 읽을 말씀 계 11:3-13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대환난을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는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학자들이 교회로 착각한 두 증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두 증인이 교회가 아니라는 7가지 증거!

첫째로, 3절에 의하면 두 증인의 활동기간이 천이백육십 일입니다. 이 기간은 전 삼년 반으로 교회 시대 전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5절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현실과 거리가 멀고, 교회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셋째로,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 중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두 증인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두 증인처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넷째로, 10절에서는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선지자로 부르려면 모든 신자가 선지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 선지자이겠느냐?”(고전 12:29)**라고 질문했는데, 이 의미는 교회가 다 선지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1장 3절은 두 증인에 대해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라

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이렇게 예언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고전 12:10)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사중지론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은사를 터부시하고 심지어 예언을 이단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자들이 두 선지자인 두 증인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엉터리 해석입니다.

다섯째로, 7-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또다시 살아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왈부드는 “어떤 이들은 이 두 증인이 문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것을 보아 그들은 실제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들은 대환난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죽일 수 있습니까? 또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시기는 대환난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때 적그리스도에게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바울이 말한 산 자들도 변화하리라는 말씀이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교회라는 것은 결코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섯째로, 13절에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문단 안에 나오는 두 증인은 물론이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두 명의 증인을 뜻합니다.

일곱째로,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3절에 의하면,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두 증인의 활동기간은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 재앙(대환난) 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환난 전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모두 승천합니까? 통과설이 진리이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두 증인이 교회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끝으로, 두 증인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결코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었습니다(마

11:14). 또,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리라고 했는데(행 7:37),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와 엘리야와 방불한 무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아가서, 두 증인은 3년 6개월간 사역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등 예수님과도 방불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교회 전체가 모세와 엘리야를 방불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3) 계시록의 두 증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초대 교회의 교부 터툴리안은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창 5:24, 왕하 2:11). 그러나 더 그럴듯한 것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주장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방불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리라 한 엘리야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례요한이었던 것처럼, 두 증인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필되는 사람이 바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방불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 주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증인의 사역은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계 11:13).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순교하고 승천한 후의 일이고, 생전의 그들의 사역은 예상한 것만큼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와 방불한 두 하나님의 사람이 동역하는데 왜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지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수가 멸망을 받았습니다(고전 10:5). 그 이유는 모세의 인격이나 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박했기 때문입니다(히 3:7-11). 모세뿐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눅 4:25-27).

이것을 생각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방불한 두 증인이 삼년 반을 사역했는데 열매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교

회에 출석하며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놀라운 기적을 일상적으로 보며 신앙생활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자들에게는 모세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도,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으로도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스테반의 설교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행 7:51-53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 나눔과 적용

모세와 엘리야를 방불케 하는 두 증인이 사역을 해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설교와 놀라운 기적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진리의 빛으로 완악하고 강박함이 폭로되어 깊이 애통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된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